타점 1위…역대 최고령 타점왕에 도전하는 ‘37세’ 이대호

“내 나이가 어때서…타점왕 하기 딱 좋을 나이”



‘대한민국 4번타자’ 이대호(롯데 자이언츠)가 질주 준비를 끝냈다. 13일까지 41경기에서 타율 0.327, 6홈런, 42타점을 기록 중이다. 타점 부문 리그 1위인 이대호가 시즌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경우 KBO리그 역대 최고령 타점왕이 된다. 스포츠동아DB

2005년 35세 서튼이 현재 최고령 기록
역대 최초 6년 연속 100타점 도전 병행
이대호 “개인 기록보다 팀 성적이 우선”

갈수록 정교해지는 ‘세이버 메트릭스’의 시각에서 타점의 가치는 예전만 못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사 능력’을 상징하는 지표로는 부족함이 없다. 이대호(37·롯데 자이언츠)는 시즌 초 잠시 부진을 딛고 꾸준하게 타점을 생산하며 이 부문 1위에 올라있다. 이대호가 타점왕에 오른다면 역대 최고령 신기록이다.

이대호는 13일까지 41경기에서 타율 0.327(159타수 52안타), 6홈런, 42타점을 기록 중이다. 이달 초 2할6푼대까지 떨어졌던 타율은 어느덧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이대호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수준으로 기록을 끌어올렸다. 특히 5월 11경기에서 타율 0.438, 4홈런, 17타점을 수확하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다. 아직 개인 타이틀 순위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두산 베어스·41타점), 장영석(키움 히어로즈·39타점) 등을 제치고 타점 선두로 뛰어올랐다.

이대호가 타점왕에 오른다면 이는 역대 최고령 신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05년 래리 서튼(현대 유니콘스·102타점)의 만 35세다. 그 뒤를 1986년 김봉연(해태 타이거즈·만 34세), 1989년 유승안(빙그레 이글스·만 33세)이 잇고 있다. 이처럼 30대 중반에 타점왕에 오른 사례는 200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에이징 커브’가 하향 곡선에 접어들면 중심타선에서 밀려나고, 타점 생산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타점 순위를 살펴봐도 상위 10걸에 오른 선수 중 30대 중반을 넘긴 이는 이대호와 최형우(KIA 타이거즈·10위)뿐이다. 실제로 38년 KBO리그 역사상 타점왕의 평균 연령은 27.9세다. 이대호는 평균보다 열 살 더 많은 나이에 타점왕에 도전장을 내건 셈이다.

여기에 이대호는 타점 관련 또 하나의 신기록을 준비하고 있다. 이대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100타점 고지를 넘어섰다. 일본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5년을 보낸 뒤 2017년 다시 롯데 유니폼을 입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00타점을 넘겼다. 총 5년 연속의 기록이다. 이 자체가 KBO리그 기록이었다. 만일 올해도 세 자릿수 타점을 돌파한다면 6년 연속으로 KBO리그 최장 기록을 갈아 치우게 된다.

물론 이대호는 매번 “개인 기록에는 전혀 욕심이 없다”며 손사래 친다. 최하위권에서 경쟁 중인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이자 유일한 목표다. 하지만 이대호의 타점 생산이 잦아질수록 롯데의 성적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부진했던 전준우, 손아섭 등이 살아나고 있다. 이들이 상위 타선으로 돌아가고, 부상으로 이탈했던 민병헌까지 합류한다면 이대호의 타점 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민국 4번타자’ 이대호는 이미 질주 준비를 끝마쳤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컴백 시동’ 정수빈 “팬들 메시지 다 읽어 봤다”

부상 빠른 회복세…선수단 합류
“팬들 걱정 감사” 복귀 시기 미정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두산 베어스 정수빈(29)이 14일 잠실 삼성 라이온즈전에 앞서 선수단에 합류했다. 아직 1군에 등록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덕분인지 표정이 무척 밝았다.

정수빈은 지난 4월 28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8회 구승민의 시속 148km짜리 포심패스트볼에 갈비뼈 부위를 맞아 다음날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정밀검진 결과 타박에 의한 9번 늑간(갈비뼈) 골절과 폐좌상 및 혈흉 진단을 받았다. 장기간 이탈이 우려됐지만, 지난 7일부터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이지마치료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은 덕분에 상태가 호전됐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정)수빈이가 어제(13일) 귀국했다. 향후 움직임을 관찰하며 기술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수빈이에게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정수빈은 “달리기와 가벼운 티배팅을 하며 상태를 점검했다”며 “지난해에도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이지마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이번에도 구단에서 빨리 조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 치료 잘 받고, 잘 먹으면서 쉬고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아직 복귀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돌아갈 것 같다”며 “타격감이 좋을 때 다친 게 아쉽긴 하지만, 멘탈(정신력)에는 문제없다. 무엇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구장)다. 많이 걱정해주신 팬들께도 감사드린다. 출입문에 붙어 있는 팬들의 메시지도 봤다. 이번 일로 팬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두산 정수빈

강백호 “여드름 폭발” ‘유일한’ 사구 후유증



KT 강백호

KT 위즈 강백호(20)가 1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전에 앞서 “딱 하나 후유증이 있다”고 수줍게 고백했다. 무슨 말 일까? 사연은 이렇다.

강백호는 11일 수원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상대 투수 에릭 요키시의 투심 패스트볼에 얼굴을 맞았다. 다행히 ‘검투사 헬멧’을 착용한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다. 다음날 요키시가 정중히 사과하자 “문제없다. 난 ‘영 가이(Young Guy)’다. 오늘도 선발로 나간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경기력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남모를 고민(?)이 있었던 모양. 스무 살 젊은 청년에게는 분명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듯 했다. 강백호는 KIA전에 앞서 “머리에 사구를 맞으면 어지러울 수도 있고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다행히 아무런 이상도 없다. 잠도 더 잘 잤다”고 웃었다. ‘건강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듯 하다’고 하자 활짝 웃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백호는 이어 유쾌한 목소리로 “딱 하나 문제점이 있다. 공이 헬멧에 닿는 순간 따귀를 강하게 맞는 느낌이 들었다. 따귀를 맞으면 통증 보다는 뺨에 열기가 크게 느껴지는데 그것과 똑같았다”며 “열이 올라와서 그런지 여드름이 다 터지고 더 도드라졌다. 자꾸 신경이 쓰인다”며 웃었다.

광주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